

인어공주의 나라, 덴마크 왕실에서 공식 맥주로 지정한 '칼스버그'

북해의 코펜하겐 앞 바닷가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명물이다. 이 동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교과서에 적힌 정답은 조각가 에드바르드 에릭센이다. 하지만 에릭센에게 동상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곳이 세계적인 맥주 회사인 칼스버그 그룹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칼스버그 그룹은 고품질의 맥주 생산뿐 아니라 문화, 예술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1876년도에 칼스버그 재단을 설립했다.

1913년 칼스버그 그룹의 2대 회장인 칼 야콥슨(Carl Jacobsen)은 에릭센이 완성한 인어공주 동상을 코펜하겐시에 기증했다.

이외에도 칼스버그 그룹은 코펜하겐에 미술관을 설립해 그림과 조각, 골동품을 기증하는 등 덴마크의 예술, 건축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인어공주 동상은 이후 덴마크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해 만든 이 동상은 길이 80cm, 높이 1.2m로 작지만, 동화의 나라라는 덴마크의 이미지와 잘 부합된다.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반기움에 찾아오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삶, 일명 '휘게(Hygge) 라이프'를 찾아 떠나는 북유럽 여행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덴마크는 북유럽에서도 색다른 매력과 개성을 느낄 수 있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 화려한 예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이 늘고 있다.

칼스버그 그룹은 세계 맥주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칼스버그 그룹은 1883년 세계 최초로 순수호모배양법을 개발, 맥주의 품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쉽게 변질되는 것을 방지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무상으로 전달해 맥주 양조 방식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맥주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172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라거 맥주의 성장을 이끌어온 '칼스버그'는 100% 몰트로 만든 우수한 품질로 1904년도에 덴마크 왕실로부터 공식 맥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페스티벌 장소 외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를 만날 수 있다.

2018년 5월부터 주류 전문기업 (주)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수입, 유통하기 시작해 그동안 부족했던 '칼스버그' 음용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칼스버그'를 즐길 수 있도록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